

여성단체 인터뷰

포천상록수라이온스클럽 회장 조정에

‘젊은 여성들의 참여로 보다活性化 되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물론 국제적인 지원 앞장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 354-H 지구 포천상록수라이온스클럽(회장 조정애)은 2004년2월28일 창립하여 현재 19명의 회원이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천상록수라이온스클럽(이하 클럽)은 여성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남성회원도 후원을 받아온 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돕고 있다.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병아리 단계라고 말하는 조 회장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라이온스 정신을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모현센터에도 추석이나 설 명절에 현금으로 지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경북대학 레오클럽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포천라이온스클럽과 포

천로타리클럽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선골프대회에도 참가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클럽 회원 자격에 대해 조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같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단체임을 강조했다. 입회비 30만원과 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클럽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어렵

게 살고 있는 기아 어린이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클럽 회원 상호간에도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활동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회원가입문의 031-536-0206)

조 회장은 포천시민들에게 “여성단체로서 서로 친목도모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포천시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포천신문사에는 상록수라이온스클럽이 각종 봉사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상록수라이온스클럽 임원 및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전회장 이명희▶회장 조정에▶제1부회장 이만숙▶총무 차효순▶재무 이휘옥▶이사 김근자▶이사 박소정▶이사 김지현▶이사 안광옥▶회원 권영자▶회원 김진숙▶회원 우상분▶회원 이봉석▶회원 김명숙▶회원 최정연▶회원 전애자▶회원 김순덕▶회원 송순심▶회원 이명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회봉사 위해 행정사 사무실 오픈

손영배 원사 40년 군복무 퇴역 후 사회봉사

지난 40년동안 군 복무에 충실한 손영배 전 원사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506-55번지에 '손영배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영북면 최초의 행정사 사무소로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이 필요할 때는 신음동까지 25km를 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서류 대행업무까지 병행 실시하여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소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류로 싸움 없이 살아야 하지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

아할지 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손 소장은 포천신문 조사위원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영북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애로사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포천문인협회 회원으로서 영북면 문인들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이 지즈 상호 사무실로도 활용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매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민연금 사회공헌 전문강사 위촉식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영호)는 6월4일 오전11시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장실에서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는 심화중(수지침), 김미경(레크레이션), 김순희(웃음치료)씨 등 3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사회공헌 연대사업 전문강사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민연금 사회공헌 연대사업 스타트!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 제공으로 연금인식 제고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영호)는 6월3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마을회관에서 직방마을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연대사업 첫 번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웃음치료와 노후설계 설명회 및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웃음치료 강사로 나선 김순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은 “일상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

지만 많이 웃으면 웃음수목 건강하다고 강조하고 웃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가진 CSA서비스는 국민연금 포천지사 송양근 차장이 노후설계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설문지를 사전에 배포해 작성된 설문지를 기초로 노후설계 자료 조사를 하고 상담직원을 배치해 출력된 자료를 기초로 노후설계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포천지사 박영호 지사장은 “농협과 연대한 사회공헌 사업 ‘농협과 국민연금이 하나로’를 기점으로 삼아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노후설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연대하고 포천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포천지사는 사업구역내 농협과 연대해 이와 같은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푸른별 음악회 군장병과 가족 주민 감동



육군 6사단은 30일 오후7시 포천시 관인 문화체육센터에서 장병들과 군인가족,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세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푸른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6월 있을 사단 창설 60주년(6.14)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포천시 관인면 후원으로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연주회는 국내 최정상 교향악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금년세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차이코프스키 '1812년 장엄 서곡' 등 상쾌한 설명과 함께 수준 높은 연주로 문화 혜택을 누리기에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재미를 선사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장병가족과 지역주민들은 입을 모아 “최전방 지역의 특성상 쉽게 볼 수 없었던 고품격의 공연을 관람하니 문화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러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계속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 CEO과정 해외연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CEO과정(제15기) 33명은 5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과 만리장성 일대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북경 천단공원, 이화원, 만리장성, 정릉, 용경열, 자금성, 천안문광장, 자연사박물관 등의 관광과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계기로 삼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 5. 21 - 6. 24 중국 베이징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웰빙 부사의(不意思) 성찰(省察) 52

성찰(省察)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반성(反省)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반성이란 자기의 언행(言行)이나 생각 따위를 놓고 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들여다 살펴보는 것이다.

성찰은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의 양심(良心)을 살펴보는 것이다. '반성'은 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깨닫는 것이라 말하고 '성찰'은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놓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말한다.

성찰이나 반성은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반성은 타율(他律)에 의해 하는 것이고 성찰은 자율(自律)에 의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律)이란 또 무엇인가? 율이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고 타율이란 남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다.

성찰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반성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자의(自意)와 타의(他意)가 갈릴 길이 되는 것이다.

성찰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라면 반성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반성은 규범(規範)을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벌칙(罰則)이다. 규범은 법령(法令)처럼 강제성은 없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엔 사회적으로 제재(制裁)를 받는다. 규범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형사처분(刑事處分)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분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豫防)하는 것이 바로 규범이다.

반성이 생활규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찰은 생활규범의 틀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人間)의 잣대가 아니라 자연(自然)의 잣대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의 잣대로 풀 수 없는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다. 숙명(宿命)을 생각하는 것이고 업보(業報)를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이 나를 '이승'에 태어나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어느 문중(門中)으로 인도했는가? 무엇이 나를 여자 또는 남자로 점지했는가? 또 무엇이 지금의 나를 지배(支配)하는 것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유전연기(流轉緣起)인

가? 환멸연기(還滅緣起)인가? 이처럼 인생 자체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 성찰이다.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물인데 그 하나는 인간인식(人間認識)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省察)을 통한 수행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이다.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화(逸話)이다. 성찰은 내면(內面)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성찰은 양심(良心)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낮추는 것이다.

분심(忿心)을 잠재우고 자신을 닦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각(自覺)을 하는 것이다.

매야 끝빠, 매야 끝빠, 매야 막시마 끝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내 탓이로소이다. 시공(時空)을 초월(超越)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반성이 각(覺)으로 이어지면 성찰이 되는 것이다. 반성을 통해 각을 이루면 도인(道人)이 되는 것이다. 성찰이 깊어지면 도인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된다. 성찰이 깊어지면 구자제(九紫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성찰이



이규임 인문학정책연구소장

깊어지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깨우침이 오는 것이다. 지혜(智慧)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계시(啓示)가 오는 것이다. 성찰이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 중요한 이유이다. 앞에서 말하는 구자제란 절대자(絕對者)가 머무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선 일곱 가지 죄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하나는 노력이 빠진 부(富)이고 둘은 양심이 빠진 쾌락(快樂)이며 셋은 인간성이 빠진 지식(知識)이고 넷은 도덕이 빠진 상업(商業)이며 다섯은 인간이 빠진 과학(科學)이고 여섯은 회성이 빠진 기도(祈禱)이며 일곱은 진실이 빠진 정의(正義)다.

간디의 이 같은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깊은 성찰에서 오는 것이다. 깊은 고뇌(苦惱)에서 오는 것이다. 간디만이 아니다. 또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오늘에도 유효한 이야기이다. 모두가 성찰해 볼 일이다.

자유기고

바다의 향기

창 밖에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잠시, 집을 등지고 바깥 쪼려 나오는 동안 작은 꿈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서 여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지, 바다 위를 버스를 타고 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만큼의 짧은 시간에 저 멀리 바다 한 가운데 빨간 등대가 보이고 서너대의 어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바다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뿌연게 피어오르는 물 안개! 푸른 바다를 가르는 여객선 그리고, 동무되어 옆에서 함께 해 주는 갈매기 떼들의 기류 가득 환풍기를 받는가 싶더니 만 어느새 석모도에 다 닿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와 섞인 비릿한 바다 내음새가 코끝으로 스며들면서 집을 벗어나 바다 가운데 서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이 모든 자연의 신

그림이 삶의 축진제 되어 주고 향긋한 육지의 향이 담긴 마나리와 채소들을 듬뿍 넣어 얼큰하고 맛깔스럽게 무쳐서 내온 살짝 비릿한 반찬이 회 무침과, 그와 어울리지 않는 달콤한 와인 한잔.

북아 먹기도, 국 끓여 먹기도 하고, 곱게 빵아서 모든 요리의 천연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말린 작은 것갈 새우도 바다 향수가 되어 내일의 활기찬 활력을 주었다.

연 푸른 빛 벌판에 모내기를 준비하는 경운기 맨의 빨간 모자가 마음의 화폭으로 옮겨지면서 저 멀리 석모도를 무릎으로 짧은 시간여행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수련회와 함께 추억앨범에 담아 본다.



이종실 주부명예기자단이사

자유기고

그날

부시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조금은 피곤함을 느끼며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문을 열었는데 준비된 화려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송구스럽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비빔밥을 맛보니 내가 태어난 날도 잊어버리고, 반쯤은 다량씩 찻바퀴 속의 내날들을 그날 흘러 버린 셈인데 어느새 자식들이 성장해서 근사하게 원삼키를 만들어 놓고 생일축하의 메시지를 외친다.

“엄마 사랑하고 축하해요. 광복준 여자 파이팅!”

나도 모르게 두 눈에 행복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남편에게 감사함이 앞선

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다. 활기찬 하루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더도 덜도 아닌 지금 이만큼의 행복을 간직하고 싶다.

시간의 흐름도 아깝고 할 수만 있으면 세월도 묶어놓고 싶고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고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배려에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꽃을 선사한 우리 가족들, 새삼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고 내 분신 3남매의 행복의 수호천사가 되고 하늘이 준 가장 소중한 당신의 마음 곁에 접어 간직하세요. 사랑합니다.”



곽복준 주부명예기자단행안지부장

자유기고

한마음 가족캠프

가정의 달, 오월의 마지막 날, 텐트와 취사도구를 싣고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향했다.

초록색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뛰놀며 축구 연습을 하거나, 나무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족들은 선생님과 함께 알록달록한 색깔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시작되는 유행가 가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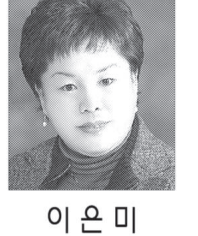
저녁은 잠곡밥에 묵은지 삼겹살 파티! 아이들과 야채를 씻고 코펠에다 밥을 해서, 호호 불어 가며 묵은 김치와 함께 먹는 고기 맛은 마치 소풍가서 기다렸던 먹는 도시락처럼 그 어느 일류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다.

식사 후, 구렁대 불빛 아래서 청궁 백군으로 나뉘어 공을 굴리기, 물 풍선 받기, 풍선을 불어 엉덩이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터트리기 등 여러 게임이 이어지고 튜브 줄다리기에서는 우리 팀이 온몸으로 잡아당겨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장기자랑 시간에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엄마 아빠는 춤

을 추는 단란한 가족도 있고, 색시한 웨이브 춤을 멋지게 소화시키는 어린 아기가 있는가 하면, 한 아내는 온몸으로 춤을 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꼽 빠지도록 한바탕 웃음을 안겨주어 오늘의 장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늦은 시간 환한 불빛아래 둥근 원을 만들어 서로서 손잡고 하나 되어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갖고 서로 약속을 하며 내년을 기약하였다. 참여한 가족들은 푸짐한 선물을 한아름씩 받고 밝게 웃으며 한마음가족캠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운영팀 교장선생님과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운이 떨어져 추운 몸을 캠퍼면으로 녹인 용주와 정복이는 피곤했는지 일찍 돌아와서 쉬었다. 일 큰하게 취기가 오른 남편이 늦은 시간에 막걸리와 생선회를 가져와 선생님, 부모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가족캠프의 밤을 장식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이사

詩

개성에서(1)

복잡한 설레임 속에
휴전선 넘어 북녘 땅 밟는다

무자년에 못 본 제비
개성 시냇가엔 짝을 지어 춤추고

박연폭포 오르는 산길에는
남녘에서 보던 낮익은 꽃들
타르스리 파귀 놓고 반긴다

하늘도, 땅도, 산천도,

갈끔한 냉이국에 열두반상 쟁겨
주는 개성처녀의 수줍음도
우리는 같은데

내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안고
마음놓고 통곡도 못하게 하는
주의와 사상 때문에

속사람은 억만 리 떨어져 있으나
어찌한단 말인가.



이중희 시인